

세계를 지향한 대만의 일본 연구

翻譯：周慧珍・康智訓

이번주 강의는 본교 외국어대학 서흥경(徐興慶) 학장님께서 맡으십니다. 강의 주제는 '세계를 지향한 대만의 일본 연구' 입니다. 본 강의의 내용은 아래 8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현황과 과제

- (1) 일본 연구가 대만에 미치는 중요성
- (2) 일본을 잘 아는 인재의 필요성
- (3) 세계를 지향한 대만의 일본 연구

2. 대만의 국제 일본학 연구에 대한 건의와 구상

3. 일본학 연구의 새로운 시각 -대만의 특징으로 무엇을 삼을 것인가?

4. 근대 동아시아의 난제에 대한 반문

- (1) '지식 허브'로서의 기능 발휘
- (2) 동아시아에 있어 근대란?

5. 아시아 공동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6. 사상사로 본 동아시아

7. 대만 식민지 연구의 발전과 양상

- (1) 식민지 교육제도의 '고찰 대상화' 현상이 유행
- (2) 식민지 통치와 언어 문화의 뒤섞인 관계 - 번역자와 번역 연구
- (3) 대만 법률 중의 일본적 요소
- (4) '대만 사건'(1874)의 표상 - 메이지 시대 일본의 대만 이미지 형성

8. '대만・일본 아시아 미래 포럼'의 지적 교류

‘현황과 과제’ 부분에서, 서흥경 학장님이 대만과 일본이 1972년 에 단교를 한 후에도 여전히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한 실질적인 교류를 맺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1960년대부터 대만 각 대학에서 추진하던 일본어 교육에서도 입증된 바입니다. 현재 대만에 일본어학과나 응용일본어학과가 있는 대학은 약 40개가 있으며, 일본 연구센터가 있는 대학은 13 곳입니다. 그러나 일본어 교육에 융성한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잘 아는 인재 양성’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현실과 이상의 거리가 아직 멀습니다. 그럼 각 대학교의 일본연구센터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까? 대만의 일본학 학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연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일본 연구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 대만이 당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일본의 문화, 민족, 국가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하려면 각 영역의 일본 연구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연구는 개별적/개인적으로 진행하기보다 그 동안 대만에서 누적해 온 우수한 일본 연구 성과와 인적 인프라 속에서 효율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산업계, 정부, 학계의 힘을 합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우수한 차세대 일본 연구자를 육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와 교육 활동으로, 대만과 일본이 서로 더 많은 영역에 깊이 있는 상호 이해가 가능해지면서 더욱 긴밀한 합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와 교육을 맡은 우리들의 방향이며 결코 지체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서흥경 학장님이 대만의 일본 연구의 중요성과 일본을 잘 아는 인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만의 일본 연구와 동아시아 지역 연구는 서로 보완하며 대만의 특장을 발휘하고 세계를 지향해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의 일본연구에서 한 자리 빛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이르러 곧 대만의 일본 연구 기구를 통합하는 ‘대만 일본 연구 연합 협회’의 설립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대만 산업계, 정부, 학계의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 대만 각 해당 대학 연구자와 연구센터 간의 연결 뿐 만 아니라 ‘동아시아 일본 연구 협의회’와 협동하여 차세대 일본 연구자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일본 연구의 다원적 발전을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누적된 경험과 성과로 머지않은 미래에, 대만 정부 직속 산하 ‘국립 일본 연구 센터’의 설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흥경 학장님은 대만에서 일본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할 뿐 아니라, 현재 대만

에서 일본어 교육의 안타까운 실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대만에는 많은 '仇日者'(일본 혐오자)와 '哈日者'(일본 마니아)가 있습니다. 전자는 주로 外省(1949년, 대만에 이주해 온 중국인) 그룹에 속하여 어려서부터 일본을 적대시하는 사상을 많이 접했기에 일본에 가보지 않은 초등학생조차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는 주로 일본 하위문화(Subculture)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젊은 층에 속하여 일본 제품이면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며 일본을 아첨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혐오나 일본 마니아, 심지어 일본에 대해 아첨하는 것 모두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어 연구와 일본어 교육의 최전방에서 선 우리가 배출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을 잘 아는 인재'입니다. '일본을 잘 아는 인재'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일본에 관한 지식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앞에 언급한 듯이 '일본의 문화, 민족, 국가 전반에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을 잘 아는' 다음 세대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만이 축적한 우수 연구와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일본 연구의 각 영역을 더욱 심화시켜야 합니다. '일본을 잘 아는 인재'를 키우기에 있어서 일본의 언어, 문학, 문화가 중요한 기초이며 없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정치, 경제, 법학, 거시적 역사관과 미시적 역사관 등 부분도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 영역별 연구는 동떨어진 듯 진행하기 보다 서로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개척하는 것이 서로의 분야에 유익할 것입니다.

다양한 취업 시장의 대응하기 위해 대만에서 많은 일본어 관련 학과와 교육기관이 '비즈니스 일본어', '공업 일본어', '관광 일본어', '법학 일본어', '간호 일본어' 등 수업을 잇달아 추진하는 변화가 일어나, 일본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원적 취업 시장에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화만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고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원적 취업 시장을 겨냥한 변화 일어나는 이 때가 바로 국내 일본 관련 각 연구영역을 통합할 적기입니다. 일본 연구를 취업 시장과 연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아시아 각국과 연결하여 전 세계에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전 세계와 연결하는 일환으로서, 아시아, 특히 대만과 일본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는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